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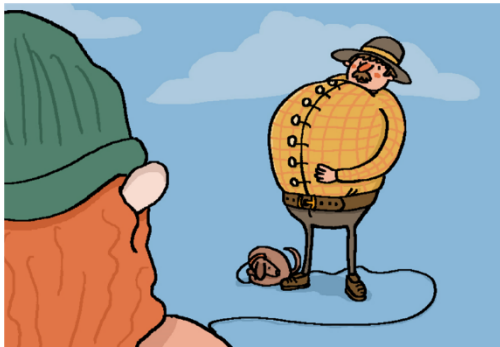
소름 끼치는 이야기
지은이 아힘 브래게르



„방금 펠릭스씨와 콘라드씨를 보셨습니까?
우산을 든 남자가 닥스훈트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여자에게 물었어요.

„내 생각엔 그들이 서로 인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사도 안 했다고요.“ 닥스훈트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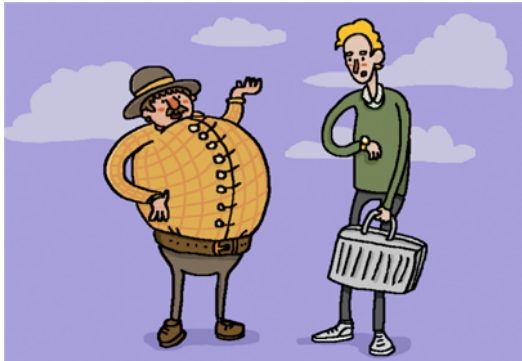


고개를 흔들며 다음 모퉁이에서 뚱뚱한
남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펠릭스씨와 콘라드
씨가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인사도 안하고 화난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다.” 뚱뚱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반복했어요.



그는 다음 모퉁이에서 서류 가방을 든 중요한 남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서류 가방을 든 중요한 사람.” 하고 인사했어요.

“최신 소식을 들었어요?”

펠릭스 씨와 콘라드 씨가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몹시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고 화가 나서 지나갔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몹시 화난 표정으로 서로 지나쳐갔다.“ 서류 가방을 든 중요한 남자가 되풀이 했어요.



그 후 그는 다음 모퉁이에서 재미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펠릭스씨와 콘라드씨가 걱정스러워요. 더 이상 서로 인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를 화가 나서 쳐다보며 주먹으로 위협했어요.

그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밀었거나 심지어 넘어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서로 너무 화가 났어요.



펠릭스 씨가 분명 콘라드 씨를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펠릭스 씨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인사도 하지 않고, 무섭게 쳐다보고, 주먹으로 위협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라고 재미있는 남자가 반복했어요.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다음 모퉁이에서 작은 꽃 모자를 쓴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그녀에게 인사했어요. „당신의 머리에 있는 그 모자가 너무 멋지네요.“

하지만 펠릭스씨가 불쌍한 콘라드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주먹으로 콘라드씨를 위협했어요.

그를 길로 밀어서 넘어질뻔했어요.

콘라드 부인이 이를 알게 된다면, 펠릭스씨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인사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으로 바라보며 주먹을 휘둘러 넘어질뻔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콘라드 부인은 남편을 도와줄 거예요.” 라고 작은 꽃 모자를 쓴 여자가 말했어요.



그녀는 계속 건다가 다음 모퉁이에서 절뚝거리는 남자를 만났어요.

„잘 지내시나요?“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는 말했어요.

„콘라드씨는 잘못 지내시는 것 같아요.“ 하고 꽃모자를 쓴 여자가 말했어요.

“펠릭스, 이 심술쟁이가 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무서운 표정으로 주먹을 휘둘러 차 앞으로 넘어졌다고 해요.

그는

머리에 흑이 생기고, 눈은 멍들고,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다행히 콘라드 부인은 힘이 세서, 펠릭스 씨한테 제대로 항의할 것 같아요. 방금 전 가게에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통조림을 샀어요.“

„인사를 하지도 않고,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어요.



콘라드 부인이 펠릭스씨에게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거예요.“ 중얼거리던 남자는 절뚝거리며, 다음 장소에서 대머리 남자를 만났어요.

„소문 들었어요?“ 그가 물었어요.

„나쁜 펠릭스는 불쌍한 콘라드 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서 길에 넘어져 차에 치일 뻔했어요.

큰 흑, 멍든 눈, 정말 끔찍했어요.



그 일 이 후에 콘라드 부인이 와서 펠릭스를 혼냈어요.

화를 내며 발을 밟았고, 콩이 든 통조림을 머리에 던졌어요.

콘라드의 아이들도 함께 있었어요.

펠릭스의 아이들과 펠릭스 부인도 달려왔어요.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고, 소방관도 빠지지 않고 왔는데 그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뿌렸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서 차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큰 흑, 멍든 눈.

가족 싸움에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출동했어요.

다행히도 소방차가 와서 모두 물에 젖어버렸어요.“ 대머리 남자가 반복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엄청 놀라서 소름이 돋을 것 같았어요.“



그 일 후 다음 모퉁이에서... 불쌍한 콘라드 씨를 만났어요.

„어머나, 정말 미안해요.“ 뚱뚱한 남자가 말했어요.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요.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제 친구 펠릭스 씨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는 같이 맥주를 마실거예요.“



„이해가 안돼요.“ 대머리 남자가 궁금해 했어요.

„콘라드씨는 절뚝거리지도 않았고, 물에 젖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 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가 다시 한 번 놀랐어요.

끝